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문아 원측이 일체개성설을 주장한 까닭은?

원측, 부처와 중생을 동일한 범주서 이해

1. 삼성론 중심의 이해

『삼국유사』 「기이」편의 「효소왕 죽지람」조에 실려있는 문아 원측(文雅圃圖, 613-696)은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독자적 위상을 차지한 사상가이다. 그는 구역(舊譯) 유식이 강조하는 사물이 지닌 세 가지 속성인 삼성론(三性論)에 입각하여 불교 유식을 바라본다. 하지만 문아가 삼성론으로 존재를 이해한다고 해서 구역 유식의 대표자인 진제(眞諦)설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는 구역 유식의 삼성론을 긍정하면서도 의타기성(依他起性)까지 부정하는 진제설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玄奘, 602-664)설을 지지하고 있다. 문아는 식론이라는 이론적 유식에 치중한 자은 규기(慈恩窺基, 632-682)와 달리 실천적 유식인 유가행(瑜伽行)과 식론을 아우르는 삼성론에 입각하여 유식을 이해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아와 규기는 크게 변별된다.

불교는 성불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일체의 경계에 불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며 동근 삶을 사는 존재이다. 부처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 존재이기에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완성을 한 존재이므로 미완성인 중생의 세계로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다. 반면 보살은 아직 부처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지위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며, 이미 부처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부처의 자리에서 내려온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번뇌가 있는

그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 식론과 요가 수행을 통해 체험한 내용을 이론화한 유가행(瑜伽行)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문아는 깨달음으로의 실천적 전환에 집중하는 유가행과 미혹한 현상세계의 모습에 대한 이론적 해명에 집중하는 식론을 통섭한 삼성론에 의거하여 미혹의 세계로부터 깨침의 세계로 나아가는 실천적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삼성론 위에서 유식관을 입문하고 있는 문아는 『성유식론소』(집일번)에서 현장 삼장의 풀이를 인용하면서 청명과 호법의 공유(空有) 논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2. 일천제의 성불 여부

불교사상사에서 여러장론 즉 불성론(佛性論)은 중생의 성불가능성을 다루는 담론이다. 붓다는 『아함경』에서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경교는 위의 구제에 대해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은 중생은 구제할 수 없지만, 언젠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게 되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지혜의 활로를 열어 상호 충돌을 피해갈 수 있게 했다. 『열반경』이래 대승경전에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여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한다. 붓다는 999명의 생명을 끊은 앙굴리 말라조차도 제도하여 출가시킨 뒤 아라한으로 거듭 나게 하였다. 또 『열반경』은 무수한 생명을 끊은 일천제(一闍提)조차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데 자은(범상)학통에서는 『해심밀경』에서 방편으로 설한 경설을 자중의 주요 담론으로 채용하여 유정의 성불을 제한하는 오성각별(五性各別)설을 주장하였다.

오성각별설이란 모든 유정은 본래부터 스스로 그러해서[法爾自然] 다섯 가지 종성(種性)을 타고 난다는 것이다. 즉 첫째는 본래부터 부처가 될 무부(無漏) 종자를 갖춘 이(보살정성), 둘째는 벽지불이 될 무부 종자를 갖춘 이(연각정성), 셋째는 아라한이 될 무부 종자를 갖춘 이(성문정성), 넷째는 두 가지 종자나 세 가지 종자를 갖춘 이(삼승부정성), 다섯째는 성문 연각 보살의 무부 종자를 갖추고 다만 인승(人乘)이나 천승(天乘)이 될 유부(有漏) 종자만 갖춘 이(무성유정)이다. 여기서 위의 넷째의 성품은 다시 셋째의 부처가 될 종자와 아라한이 될 종자(보살·성문 부정성), 둘째의 부처가 될 종자와 벽지불이 될 종자를 갖춘 이(보살·연각 부정성), 셋째의 아라한이 될 종자와 벽지불이 될 종자를 갖춘 이(성문·연각 부정성), 넷째의 아라한이 될 종자와 벽지불이 될 종자와 부처가 될 종자를 갖춘 이(성문·연각 보살 부정성)처럼 인간의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각기 따로따로 결정되어 있다고 했다.

범상학통은 이것을 영구히 성불할 수 없는 무성유정과 성문과 연각의 과중(果重)만 얻을 결정 성문과 결정 연각의 종성을 세우고, 부정종성과 보살종성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규기는 자신의 논지를 세우기 위해 『해심밀경』에서 단지 경계해서 교화하는 방편으로 설한 ‘무성천제(無性闍提)의 존재를 언급하여 다시 생사를 즐기는 단선근(斷善根)천제, 열반을 즐기지 않는 대비(大悲)천제, 영원한 열반의 성품이 없는 무성(無性)천제도 나누어 일분무성론(一分無性論), 즉 일천제불성불론(一闍提不成佛論)을 입문한다. 이것은 결정적 성불할 수 없는 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아는 “보살종성과 부정종성만이 성불할 수 있고 무성종성인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은 삼승가의 방편적 담론이고, “모든 존재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불설의 핵심인 중도설에 입각한 진실한 담론이다. 해서 일승가의 입장에서 모든 중생의 성불을 논변하였기 때문에 ‘일체개성설’(一性皆成說) 혹은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이라고 한다. 유식의 소의경전인 『해심밀경』에서 방편설로 제기된 오성각별설과 ‘살아있는 것들은 모

두 여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대승경설은 서로 위배된다. 문아 원측과 자은 규기는 인간의 성불 가능성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두드러지게 대비된다.

3. 중생에 대한 평등적 이해

대승 경론에서는 인간을 ‘상중하’ 3품과 다시 각기 그 아래에 3품의 차등을 두어 차별의 ‘근기론’을 시설하고 있다. 또 다른 대승 경론에서는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實有佛性)’의 맥락에서 ‘근기는 끈기다’라는 평등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는 이들 두 입장이 혼재하고 있다. 종래 신라 유식가들은 일승(一乘)의 입장에서 소승과 대승을 아우르는 반면 당대 범상 유식가들은 소승과 차별된 삼승(三乘) 우위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해 왔다. 특히 문아는 범부로 하여금 발심(發心)을 통해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이승 등의 수행자로 하여금 보리(菩提)를 인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생의 성불가능성과 보살의 선교방편행을 인정하는 일승(一乘) 유식가인 문아와 달리 삼승(三乘) 유식가인 규기는 성불의 제한과 방편의 부정을 통해 평등의 인간상이 아니라 차별의 인간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삼승 유식을 일승 유식보다 우위에 두어 자중 중심의 배타적 유식관을 견지하였다.

문아는 어떠한 중생이라도 언젠가는 성불한다며 중생에 대한 희망과 긍정의 시선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인왕경소』에서 “중생



중국 홍교사에 자리한 원측 스님의 사리탑. 서쪽 규기탑과 중앙 현장탑을 향해 서있다.

원측, 모든 중생 성불 가능 하다는데 기반된

규기 학통의 배타적 인간관과 세계관 대조

의 성품은 여의주와 같아서 반드시 모두 다 성취할 수 있고, 중생의 근기는 청정한 물과 같아서 자비심과 같이 그림자와 조화하여 더욱더 푸르게 하며, 중생의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여여하여 바뀌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니 그 성품은 고칠 수 없는 뜻이다”며 기리고 있다. 문아는 비록 현재는 모가 나고 이해가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통달어지고 이해가 깊어지게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 그리하여 그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선으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이처럼 문아는 불교의 종교적 기능과 성격에 잘 이해하고 있다. 반면 규기를 비롯하여 해소-지주로 이어지는 자은학통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다.

자은학통의 관점은 여타의 유식가들처럼 수행위에서 범부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막아 놓은 것이며, 이미 심신위를 거쳐 상당한 수행에 이른 심주위의 보살을 첫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체의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경설을 수용한다면 대승의 화엄과 유식에서처럼 10신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삼승 유식을 주장하는 규기의 입장이라면 마땅히 삼승에 포함된 성문, 연각, 보살승뿐만 아니라 범부조차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규기는 범부들이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반면 문아는 여타의 유식가들과 달리 범부들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규기 이래 당대 유식이 취한 것처럼 보살의 52계위에서 심신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41위를 세우지 않는다.

문아는 『성유식론』제9권설에서 “어떻게 유식 오위로 깨달음에 들어간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수행의 시작인 자량위를 경론에서처럼 ‘대승을 수행하여 해탈분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전제 한 뒤 해석을 덧붙여 수행의 첫 단계인 심신을 발심위(發心位)라

명명하고 발심보리(發心菩提)를 강조한다. 즉 그는 유식 오위의 첫 단계인 자량위를 ‘심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심회향에 이르는 단계’로 해명한다. 이것은 부처와 범부를 동일한 범주 속에서 이해하려는 문아의 불교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 붓다가 될 수 있다면 발심과 보리는 분리할 수 없다. 불교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범부가 ‘발심’의 주체라면, 깨침을 얻은 붓다는 ‘보리’의 증득자이다. 그러므로 심신으로부터 심주와 심회와 심회향까지가 자량위라면 이것을 대승의 수행자에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비록 자량위가 대승을 닦아 해탈분에 수순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제된 심신을 발심위로 상정한 문아의 관점은 규기보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생을 긍정과 희망의 존재로 이해하려는 문아의 대승의 마음과 일승의 지향을 알아낼 수 있다.

참고문헌

- 원측, 『인왕경소』(『한불전』 제1책).
- 원측, 『해심밀경소』(『한불전』 제1책).
- 원측, 『반야심경전』(『한불전』 제1책).
- 원측, 『성유식론소』(支那內學院, 民國 24년 편집, 民國 27년 간행).
- 고영섭, 『한국불교 서명문어(원측)학통연구: 문아대사』(불교춘추사, 1998).
- 고영섭, 『동아시아 불교에서 유식 범상의 지형도』, 『불교학보』 제61호, 불교문화연구원, 2012.
- 고영섭, 『문아 원측 『성유식론소』의 연구』, 『문학사학 철학』 제14호, 대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 한국불교사연구소, 2008년 가을.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 국태민안 남북평화통일 기원 및 일보신문 창간 29주년 기념대법회 축

귀의삼보하옵고

신록이 짙어진 계절에 일보신문 여러분들과 귀빈 여러분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보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현대불교사에 한 획을 그어 놓으신 세계불교법왕창 초대법왕 일보 서경보 존자님께서 29년전에 창간한 일보신문이 어느덧 29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에 일보신문 29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에 귀하를 특별히 초대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56(2012)년 7월 20일 (음, 6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 불자가수 축하공연(제1부) 오전 11시 - 창간 29주년 기념법요식(제2부)	장 소 :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 (서울 용산구 효창동 225번지 효창공원내)	문의 : 02)777-0959 (대표전화), 777-0901 * 점심공양제공 (프라자 호텔에서 준비), 주차장 완비 * 불자가수 특별 출연진 : 나운하, 강달님, 정도원, 현승, 선선호, 노성일, 연화 외 다수출연	
---	---	--	--

창간	주 문	일 보	서 경 보
고	재	석지산	대종사
총	장	박삼중	대화상
회	장	김도기	대화상
수	석	박청운	대종사
석	부	윤법홍	대종사
부	회	동봉	정대통령 대화상
회	장	이	부 서 병 열
장	장	이	부 서 병 열
부	회	석법정, 송산, 고산(향운), 만주, 고재용, 보혜	

부 회 장	서 경 림	종 사
석정림	종사	

는 설 위 원	김성욱	편 집 국 장	배영희
업 무 국 장	천명섭	취 재 국 장	석청광
편 집 실 장	이은아	문 화 원 장	태 산
사 진 기 자	임광용		
취 재 기 자	최춘희, 박정희, 조희원, 김동학, 김정훈, 최성철		

서울지사장	최용국	부산지사장	김례수
광주지사장	장영기	수원지사장	대현
경기(영주)지사장	이승원	충남지사장	석해광
경남지사장	고석	울산지사장	김청호
일분지사장	산하송지	미주지사장	서주희
미얀마지사장	서은미	일본북해도지사장	김선미
인도지사장	SINILKUMAR	스리랑카지사장	KARIBONG

회 장 김도기 사 장 동봉 정대통령

일 보 신 문 발행인 겸 편집인 이봉 서병열(민주평통자문위원)

임직원 일동 합장